

시인의 눈에 비친 청주와 충주의 이미지

The Image of Chongju and Chungju Seen Through the Eyes of a Poet

허의행 / 시인, 중원문학 주간
by Hur Eui-Haeng

청주, 충주의 이미지와 상징성

청주의 이미지는 정이품송이나 청풍명월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맑은 바람이나 벚꽃 또는 철당간이나 적지심체와 같은 불교의 이미지나 연꽃이미지가 더 가깝게 와 닿는다.

청주가 다른 도시보다 청결하고 개방적이며 예술적으로 섬세한 느낌이 강한 것은 비교적 신도시라는 점과 학생들과 젊은 근로자들이 많다는 탓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문화가 꽃피고 창의성이나 흥행성이 강하다.

시의 상징물은 느티나무와 까치, 그리고 우아한 멋을 풍기는 목련꽃이다.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나 청주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 가령 느티나무는 과산이 적지니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로 정하면 어떨까. 까치 또한 충주와 같으니까 충주쪽에서 천둥오리나 물새로 바꾸면 좋을 듯 하다. 여하튼 청주는 바람과 초록의 청량한 느낌과 건강미 넘치는 명량한 아가씨 이미지를 연상하기에 좋다. 도시를 둘러싼 광활한 전원과 나즈막한 산자락이 평온을 주며 공간적 자유를 연상하기에에도 충분하다.

“바람끝 설레이는/ 플라타너스 터널을 지나면/
무심천 풀어놓고 활짝웃는 그대여”

- 허의행의 '청주' 중에서 -

시적 이미지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이 영그는 곳이 청주이고 무언가 미래에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

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나 청주의 환경이 오염되고 훼손된 현실을 가슴 아리게 노래한 시인도 있다.

“예쁜 산 쓰러진 자리에 / 불쑥불쑥 솟아나는
회색 건물 / 내 생명의 영토는 자꾸 줄어들고 / 꿈속에서도 검은
숲과 해골 꿈꾸는 나

오늘도 인구가 몇 명 늘었습니다. / ... 핏빛 함성이 하늘로 제비처럼 날아갑니다. / 오늘도 골목에는 연기가 무럭무럭 오릅니다.”

- 이현암의 '청주노래' -

산업화 된 도시의 쓸쓸함을 노래한 것은 이 시인만이 아니다. 청주의 대표시인 도중환의 우수와 박용삼의 비감은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현실복원을 더욱 애절하게 기다리는 구원의 목소리다. 김초혜 시인은 고향의식의 상실과 유년을 회상하며 청주를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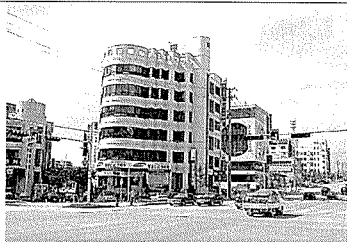
대부분의 청주문인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구성력이나 메타포어도 뛰어나다.

임승빈, 이석우 등이 이끄는 '마음을 가리키는 시' 동인들과 반철환 같은 시인들은 탄력이 강하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고향이 인근지역이라 청주에 대한 근원적인, 청주에 대한 깊은 성찰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이 그리워하고 보고 파 한 곳은 청주보다는 텃줄을 문은 산간 고향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청주로 이주해와서 사는 사람들은 청주가 낯설고 쓸쓸하다고 한다.

“무심천 방죽따라/벚꽃이 만발해도/내 눈가엔
/달기미 언덕/환한 싸리꽃만 아른대는걸/- 종락 -”

- 박천호의 '낯선 땅에서' 중에서 -

청주에 살면서 고향을 그리는 맘을 쉽게 알 수 있다. 끝연에서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고향땅 흠내음이...' 하는 독백으로 할 수 없이 얹혀사는 심사를 토로했다. 이웃사이더인 이들의 삶의 궤적에서 우리는 청주가 현대도시의 성격을 갖춘



충주 신도심 교차로 근린생활시설들



충주 백건전수관



충주 우례당

큰 도시라는 점과 고향잃은 많은 표류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주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다. 사람들 성격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맛이 있다.

다소 도시의 밀집성과 익명성으로 눈에 거슬리거나 무책임한 일들이 청주인의 품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따뜻한 인심과 선비적인 기질은 양반 도시다운 청주이미지를 든든하게 해준다.

충주는 지형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도시다. 도시의 발달과정을 보면 신도시보다는 전통적인 고도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을 무대로 삼국이 겨루었으며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이 이를 증명해준다.

충주의 젓줄인 남한강과 달래강이 비옥한 땅을 만들어 자연적으로 농경문화가 성하였고, 도시는 농산물의 집산지로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발달했다. 또한 남북의 긴 산지에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질이 높은 '충주사과'가 전국적으로 팔려 나간다. 이곳의 주요 생산물로는 사과와 고추 등 농산물과 전국에서 이름난 수석 그리고 향기가 뛰어난 산나물 등이다. 시의 상징물은 은행나무와 까치 그리고 굳은 절개를 나타내는 매화꽃이다. 그러나 충주는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충주호, 수안보, 능암온천 등으로 물빛 이미지가 강하다. 물빛은 투명하고 맑으며 생기를 띤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강가에 나가면 은쟁반 같은 호수로 옥빛 햇살이 번지고, 둑길마다 피어있는 무수한 들꽃을 만난다. 물가의 중앙탑도 충주의 이미지로 많이 팔렸다. 충주의 문인들이 쓴 글중에는 강에 대하여 쓴 작품이 많다. 이 또한 지역성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남한강을 쓴 신경림 시인은 강의 시인이라 할 수 있다. 양채영 시인은 들꽃의 시인이다. 박재륜 시인도 산과 강을 노래한 것이 많다.

“인간들이 모여사는 동네보다는/그 이름없는 산줄기를 바라보며 살아왔다./그 산줄기가 반으로 갈라져 /서켜앉은 사이로 흘러내리는/남한의 가람기를 거닐며 살아왔다. -중략-”

- 박재륜의 시 '작품 32' 중에서 -

충주의 대표적인 시인들은 산과 강의 이미지를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다.

강이 유순한데 비해 거칠며 신성한 느낌을 준다. 또한 산은 굳은 불변의 의미와 고집을 나타낸다. 충주의 이미지가 산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강과 산이 있기에 물이 좋고 꽃도 많다. 그러나 산과 강은 인간의 발길을 막고 정보를 더디게 한다. 그래서 그런지 덜 개방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충주사람이 전통을 중시하고 사교성이 부족하여 남과 쉽게 사귀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근 30년 가까이 살아왔어도 충주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큰 강물처럼 흐르는지 고였는지 분간이 안된다. 도시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원군과의 통합으로 12개 면이 통합된 것과 목행쪽으로 연수동에 신도시 그림자가 생긴 것 외에는 변한게 없다. 질기도록 변하지 않는 도심과 건물들, 답답할 뿐이다. 이 또한 충주의 얼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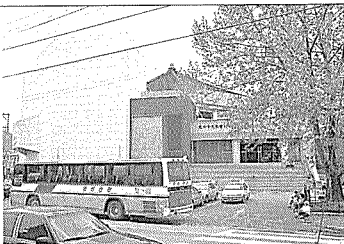
청주와 충주의 도시 모습과 건축문화

청주와 충주는 중부권의 중심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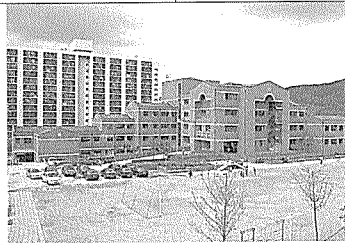
이는 한반도의 중심부라는 점과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중간지역 즉 산록과 평야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 비교적 살기좋은 고장이 충청도라는 점이다. 앞뒤로 높은 산맥과 강으로 둘러 쌓여 타지방과 문화교류나 정보가 늦고 보수적이며 폐쇄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이 말은 교통요지인 청주보다는 충주쪽이 훨씬 심한게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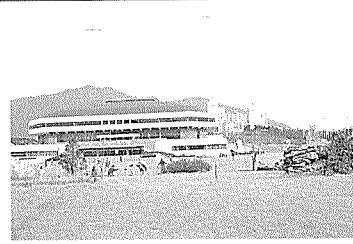
아마 충청도 양반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통이 불편하여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가능하다. 선비의 덕목이 청렴과 지조를 지키며 전통을 따르는 유학



충주문화회관



충주 연수초등학교(열린교육 시범학교)



충주실내체육관

적인 생활과도 관계가 깊은데 이는 충청도가 사대부들의 유배지였거나 휴양지였음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된다. 그들의 지지자나 제자들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중앙에서도 두려워 한 곳이기도 하다.

충주는 충북 최대의 곡창지대인 미호평야를 끼고 있어 농산물이 풍부한 도시다. 일제시대인 1906년 충주에서 청주로 관찰사가 이전되면서 충북의 관문이 되었고 지금은 교육·문화도시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예전에 충주는 성안을 중심으로 멋진 기와집과 고건축이 즐비했고 집안에 들면 사군자나 서화 한두점은 쉽게 눈에 띄었다. 삶에 여유가 있으니 인심이 넘쳐나고 풍광이 수려하니 시인묵객(詩人墨客)이 무수히 드나들었다.

충주는 내륙 깊숙히 자리하여 육로교통은 불편했지만 옛부터 물길이 발달하여 강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곳곳에 역사유적이 많고 산과 강이 아름다워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도심은 충주읍성을 중심으로 성서, 성내, 성남동, 그리고 직동쪽으로 변화했고 충주 중심보다는 외곽지역이 더욱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도 했다. 옛 건축물은 관아공원의 청령헌 뿐이며 강변에는 창고나 주점, 객관이 많았다.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탄금대, 가흥창, 목계, 용원, 수안보 등은 충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명들이다.

근래에 들어 충주는 대도시로 급격히 발전했다. 70년대 들어 농업과 상업,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했고 충주공단이 완성되면서(69~89년)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교육과 공업화와 80년대 공단조성으로 충주는 산업도시로 성장했고 인구도 60만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모습도 종래의 남문, 북문로가 있는 상당구를 벗어나 기경, 봉명, 복대, 강서쪽으로 기형적으로 확장되어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있다. 건물의 모습도 신도시가 그렇듯 사무실이나 아파트, 주상복합상가, 위락시설용 빌딩군이 우뚝우뚝 들어섰다. 그 중에 현대적 조형미가 넘치는 예술의 전당이나 성당도 있고 주제를 살린 청주시청과 공설운동장도 특색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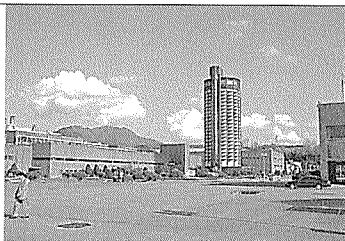
건축가 김수근씨가 설계한 청주박물관이 충주의 명물일 것이다. 양지 바른 우암산 자락에 위치한 청주박물관은 자연과 현대적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 명작임이 틀림없다. 화강암을 소재로 한 점이나 운치있는 공간구성, 그리고 관람객의 편리성을 고려한 감성적인 건축물이라는 평이다.

근래에 들어 충주에도 보기에 좋은 건물들이 눈에 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맞닥뜨린 연수동의 백상빌딩과 안림동의 힐하우스(지붕은 깨진 옹기로 덮고 내부는 훤히 넓게 장식한) 그리고 금릉동의 파라다이스 레스토랑(프랑스풍)이 신선감을 주었다.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은 연수초등학교는 기존 학교라는 관념을 모두 제거하여 내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 밖에도 전통적 가옥구조를 살린 우륵당과 한국코타의 콘도미니엄 등은 휴양도시의 정취를 물씬 풍겨준다.

이 두 도시는 전원의 포근함과 산천의 아름다움을 효율적으로 살려내지 못한 점에서 아쉽다. 기령 충주는 낮은 구릉과 무심천을 유연하게 살려 시민들의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해야하고 성안길은 걸어서 다니도록 도로나 건축물이 설계돼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나 모양, 색채도 청주의 정서를 살리는데 관심을 두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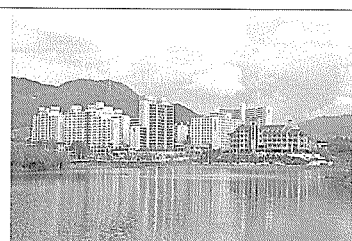
충주는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가운데 우뚝 선 아파트나 건물들이 보기 흉하다. 스카이라인이나 지평선을 소홀히 한 점, 주변의 건물들이 대칭과 비례, 전체와 부분, 기하학적인 면에서 균형이 맞지않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충주와 충주, 그 좋은 자연적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건축가들과 행정기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건축미학에 대한 수준이 전문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식을 일깨워 줘야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사회·경제적 수준이 따라줘야 건축문화도 발전하겠지만... 주제가 있는 건물과 충북의 특색을 살린 건축물이 하루 빨리 보고 싶다.



충주 새한미디어 전망대
(옛 충주비료공장 싸일로 개조)



충주 파라다이스 웨딩홀('97 건축상 수상작)



충주 호임지변 경관(아파트, 후랜드리 호텔)

충주와 청주의 문화유적과 명소들

청주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2개 있다.

철당간과 직지심체가 그것이다. 그 외에는 지방문화재로 청주동헌과 상당산성과 우암산의 석불군 등이 있다. 국보급이 3개(중앙탑, 고구려비, 정혜원 용탑)인 충주는 보물급과 지방문화재도 무수히 널려 있다. 자연적인 여건이 좋아 선사시대부터 강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는게 학자들의 견해다.

기불만한 명소도 청주보다는 충주가 많다.

산과 강과 온천, 계곡 등 자연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곳이 충주다. 필자가 청주에 오면 갈 곳이 없다. 청주시내 학생들이 소풍지를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주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연적인 것보다 예술적인 문화가 활성화되어 각종 전시회나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충주에서는 왜 없는가 불만을 토로하니 흥행에 자신이 없다는게 이벤트사의 얘기다.

사실 5~10만원 주고 콘서트를 갈 문화적 수준과 시민의식을 장담키 어렵다. 건물은 지으면 되지만 의식은 쉽게 함양되는 게 아니다.

문화는 생활속에서 즐기고 향유할 때 발전되고 계승되는 데 충주의 경우는 문화유적이 많고 고도인데도 잘 가꾸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유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상실도 심각하다.

충주에는 택견과 탄금대 방아타령, 목계별 신굿이 전해오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택견만 겨우 전수되고 있다.

청주의 모내기엔 관계된 풍속도 사라진 지금 우리의 문화는 급히 사라지고 외래문화의 범람에 시달리고 있어 문제다.

생각을 접으며

들녘의 포근한 황토언덕이나 풀 한포기 그리고 작은 실개천이 당장엔 우리 삶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부가가

치를 창조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입장이거나 개발논리에서 보면 오히려 구차하게, 아니 낙후된 후진성만 올려주는 꼴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급하게라도 빨리 신도시다운 빌딩군이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물론 도시의 기능이나 편리성에서 또는 토지의 상승기를 기대하는 소시민들의 투기심이라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보다는 정치적인 정책이나 재벌들의 장사 속심이 더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 옛 향기가 물씬 우러나는 고건축이나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뒤편은 '직지' 찾기 같은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때늦은 후회를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없어야겠다.

난 가끔 전국의 명물이 된 청주 플라타너스 터널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한가. 청주를 찾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내뱉는 말이다. 또한 친자연적인 요소와 건축미가 함께 빛나는 청주박물관을 보라. 명암지를 지날 적마다 감탄하게 하는 그 기막힌 발상과 감성적인 건축미학 이것이 바로 예술인데 우린 그 같은 함의에도 동떨어져 있었다.

잘 지어진 건축물 하나는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정서와 소재에 어울리는 한국적 건축물이 눈에 많이 띄었으면 좋겠다.



청주 덕재빌딩
(97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작)



청주국제공항



청주 수곡국민학교(97 아름다운 건축물 가작)